

화성시 문화자치 참여 시민 협의체 3차회의 결과

□ 문화예술교육 분과 [2022. 10. 22.(토) 10:00 / 동탄 노작호수공원]

구분	내용
<p>협의체 운영방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문가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한테는 지루할 수 있어서 중간지점을 잘 맞춰야 함 → 전문가와 시민의 양립 필요 · 전문가는 거시적인 정책을 틀을 짜야한다면, 일반 시민이나 활동가는 뭔가 해볼 수 있는 플랜이 있어야 함 → 조금 더 총괄적인 것을 논의 필요 · 너무 전문적인 것을 논의하면 일반 시민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움 · 협의체의 역할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라고 봄 · 시민이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문화의 시작 · 회의가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집중이 되기를 바램 → 각 분과별 의제가 달라야 함
<p>협의체 회의방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권역별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이야기하고, 다음에는 줌으로 권역간 연결하는 회의 검토 · 모든 회의를 줌으로 하는 것 보다는 현장 후기 및 그 안에서 공론화 시킬 수 있는 것을 회의에서 발전시키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음 · 줌은 전달이 잘 안 되기에 토론 위주라면 대면이 더 좋음 · 큰 공론장은 줌으로 전체 논의 하고 작은 공론장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방향이 맞을 것 같음 · 협의체 회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행사장소 선정 요망
<p>홍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홍보 방안을 다양화할 필요 있음 ·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홍보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있음
<p>기타 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소년 대상 여러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문화 캠프 제안 → 지역이 크고 이동이 불편하니,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요구됨 → 강원도 아트비엔날레와 캠프를 결합한 사례 있음 → 교육과 레저를 결합하여 운영 · 행사 중간에 행사 콘텐츠에 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 필요 → 문화예술교육의 시작점 · 추후 협의체 워크숍을 진행하여 관계가 발전되었으면 함

□ 청년예술 분과 [2022. 10. 25.(화) 19:00 / 두들리안 타악기 공작소]

구분	내용
<p>예술인의 임금 현황 점검 [예술인 기본임금]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예술인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, 기본임금에 대한 기준점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됨 · 기본이 없으면 포기하는 예술인이 많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함 · 기본임금은 예술인들이 대리운전 등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예술에 집중하게 해주는 촉매제 역할 할 것 · 예술인 소득 상한선은 제한하기 어렵지만 최소 기본소득 기준 설정 필요 · 기본 권리가 없을 경우 포기해야 하는 예술인이 많다 보니 버틸 수 있는 기본 소득 지원 필요 · 예술인 지원의 확실한 기준점과 지원 자격제한 방법에 대한 방향성 필요 · 불특정 다수 지급보다는 실제로 열심히 활동하는 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 · 기본임금은 꼭 필요하다고 보나, 소득적인 지원과 별개로 대관지원과 같은 행정적인 지원으로 동기부여 및 기회제공도 필요함 · 기본소득으로 인해 나태함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 우려됨 · 일반인들이 예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· 현재 예술인에 대한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다고 느낌
<p>예술인의 임금 개선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예술가에게도 호봉제가 있었으면 좋겠음 · 예술인 출연료에 대한 기준 및 지침 필요 · 예술인 지원에 대한 구분이 필요(신진·소득별 등) · 금전적 지원보다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·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였으면 함 · 지휘자가 많이 가져가는 등의 수익 분배구조 개선 필요
<p>기타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원사업을 보면 나이 제한이 많아서 ‘중년’ 예술가는 소외되는 느낌 → 중년 시기에 현실적인 별이가 되는 다른 직업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음 · 예술인 섭외 관련 유선 연락 후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제재 필요 → 식당 노쇼 관리처럼 연주자를 보호해 줄 제도 필요 · 중앙정부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 기관을 변경한다는데 재단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· 콘텐츠의 지속성 중요. 전시처럼 공연도 상시,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나 문화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음 (Ex. 대부도 경기 창작센터) · 공연을 개최해도 모르는 경우 많음.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중요 · 관객 유입은 장소, 교통편보다 콘텐츠가 중요하다 생각

□ 생활예술 분과 [2022. 10. 26.(수) 19:00 / 봉담 문화의집]

구분	내용
<p>지역 문화 공간 실상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원이나 유휴공간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절차상의 간편화 필요 → 대관절차의 시스템화 및 공원과(시청)와 시민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주체 필요 · 공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제한적임 · 공공시설의 경우 시민을 위해 건립되었는데도 자격 및 절차가 까다로워 참여가 어려움 · 공간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는데도 공간 대부분이 관련 규칙(조례) 때문에 대관이 불가능하였음 →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니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완화해야 함 (효율적인 운영 필요)
<p>지역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의 역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협의체에서 메뉴얼을 만들면 위원회와 화성시를 거쳐 개선되지 않을까 함 · 관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협의체의 역할 · 공간 하나를 선정하여 공공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시민이 쓸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함

□ **예술지원(장애예술) 분과 [2022. 10. 27.(목) 10:00 / 생활문화창작소]**

구분	내용
<p>장애예술 (문화소외계층) 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에 장애예술인이 많은데 신경 쓰지 못하는 점이 아쉬움 → 추후 많은 조명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·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부모를 위한 힐링 사업도 필요 · 저소득층을 위한 미술치료도 필요함
<p>예술인 지원사업 관련 개선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화성시는 지원 프로세싱 과정이 너무 복잡함 → 지원 신청에 구글이나 네이버 폼을 활용한 간소화 절차 도입 검토 요망 · 재단 지원사업을 받았으나, 불필요한 과정과 행정서류가 많음 · 화성시 지원사업의 경우 파일철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움 → 서울시처럼 전산으로 쉽게 정산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함 · 지원사업 세팅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였으면 함 · 화성시 대관료 지원사업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한정적 → 화성시에서 보증해주는 공간(민간)을 지정하여 지역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
<p>행정 개선 요청 및 제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화성시는 지역 예술인을 활용하기보다 서울의 공연을 사오는 유통에 집중되어 아쉬움 · 지역 전시공간·이음터·노작홍사용문학관 등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면 함 · 지역 예술가를 서포터하는 프로그램이 적음 · 인사동처럼 다양한 문화가 항상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함

□ 공연·전시 콘텐츠(문학) 분과 [2022. 10. 27.(목) 14:00 / 봉담 문화의집]

구분	내용
지역 행사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행사가 너무 집중되어 운영됨 · 화성시 행사의 경우 협동·협치·공동체에 대한 특징이 강하여 교육적 측면이 부족함 · 정극·인문학 등 지식 제공적인 측면의 콘텐츠가 있었으면 함 · 행사 운영 시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것을 보여주려다 보니, 오히려 행사에 집중하지 못함
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통합예약시스템의 경우 노년층이 접근하기 어려움 · 서부권은 어르신이 많아 현수막 홍보 효과 좋다고 봄 · 행정 게시대 사용 아닌 문화전용 게시대 만들기 필요 · 문화 광고판을 대로에 설치하였으면 함 · 버스 정류장 안내 LED판 중간에 광고 활용 요망 · 인터파크 같은 사이트를 민관이 같이 운영하였으면 함 · 매월마다 행사를 모아서(민관 통합) 주민센터 외벽을 활용하여 한 달에 한 번씩 게시 하였으면 함 ·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 · 게릴라 현수막의 경우 정보의 홍수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